

휘발유 넘어선 경유...정부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하나

기존 인하 폭 20%보다 10%p 확대 검토

휘발유 ㄹ 당 82원·경유 ㄹ 당 58원 ↓ 전망

최근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 급등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유류세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2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 받았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류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기준 3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ㄹ당 2001.9원으로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5.6원 오른 ㄹ당 1918.1원을 기록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가격이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에 ㄹ당 2000원대까지 치솟으며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경유 비중은 20%를 차지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유 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제시장의 경유 '몸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으로 유럽의 경유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러한 영향이 국내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근 4월30일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폭까지 현행보다 10%p포인트(p)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로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는 현재보다 ㄹ당 82원, 경유는 ㄹ당 58원 더 내려간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교통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ㄹ당 820원이다. 유류세 20% 인하로 현재 656원 부과되는데 30%로 인하면 574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경우 휘발유에 혜택이 더해지면서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높아지는 가격 추월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제유가가



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유럽 여행상품’ 1시간 만에 2800건 팔려



입국자 자격여의 의무가 사라지며 해외여행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패키지 여행상품 방송에서 한 시간 동안 2800여건의 주문이 몰려 150억원의 판매고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150억원의 판매고 달성

해당 상품은 '스페인 및 이탈리아 일주 9일' 패키지인 스페인 9개 도시와 이탈리아 10개 도시를 둘러보는 상품이다. 왕복 에티하드 항공 및 4성급 호텔 숙박, 아울렛 쇼핑 일정 등으로 구성된다.

CJ온스타일은 유럽 여행상품 판매를 본격화해 오는 4월 3일 하루 2회 방송을 진행한다. 오전 10시에는 교원KRT와 함께 북유럽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며, 오후 6시20분에는 잠룡은여행과 손잡고 유럽 베스트 모음전도 방송한다. 오유나기자

BMW, 첫 순수전기 그란쿠페 i4 출시...6650만원부터

i4 이드라이브 40과 i4 M50 두가지 파워트레인 출시

BMW 코리아는 브랜드 최초의 순수전기 그란 쿠페 i4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i4는 국내에 i4 이드라이브(eDrive)40과 i4 M50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된다. 이 중 i4 M50은 BMW의 고성능 브랜드 M이 선보이는 최초의 고성능 순수전기 모델이다. 사륜구동 시스템 엑스드라이브(xDrive)를 비롯해 어댑티브 M 서스펜션, M 스포츠 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i4에 탑재되는 BMW의 최신 전기화 드라이브 트레인 '5세대 eDrive' 전기모터는 가속 페달을 조작하는 즉시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또 아주 넓은 영역에서 최대토크를 유지해 어떠한 주행환경에서도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1개의 전기모터가 탑재되는 후륜구동 모델 i4 eDrive40은 최고출력 340마력 발휘하며 시속 100km까지 5.7초만에 가속한다. 앞 차축에 258마력, 뒤 차축에 313마력의 전기모터가 각각 탑재되는 사륜구동 모델 i4 M50은 합산 최고출력 544마력을 발휘, 시속 100km까지 3.9초만에 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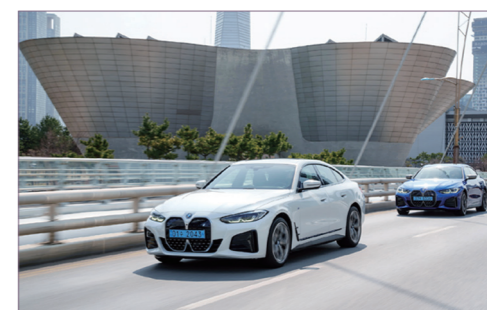
여기에 세계적인 작곡가 한스 짐머와 공동 개발한 BMW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이 기본 적용된다. 가속페달 조작 정도와 차량의 속

도에 따른 실제 피드백을 제공해 감성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i4 차체에는 BMW 특유의 스포츠 성향을 발휘하도록 진보된 설계 기술이 반영됐다. 높은 비틀림 강성과 0.24Cd에 불과한 공기저항계수 덕분에 뛰어난 주행안정성을 제공한다. BMW 3시리즈 세단 대비 최대 53mm 낮은 차체 무게 중심과 50대 50에 가까운 앞뒤 무게 배분, 넓은 윤거는 정교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발휘하는 데 기여한다. 리어 서스펜션에는 에어스프링을 장착해 장거리 여행에서의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들도 포함됐다. 먼저 i4에는 BMW의 혁신적인 '적응형 회생제동' 기능을 포함해 총 4개의 회생제동 모드가 탑재됐다. 적응형 회생제동은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AI)이 주변 상황 및 교통흐름을 다각적으로 판단, 회생제동 강도 및 관성주행 여부를 스스로 조절해 에너지 회생 효율을 최적화한다. 기어 레버로 B모드를 선택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최대한의 회생 제동이 이루어지며 정차까지 가능해 '일 페달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최대 205kW 출력의 DC 고속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할 경우 10분 만에 최대



164km(i4 eDrive40 기준)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i4 eDrive40이 복합 429km, i4 M50이 복합 378km다.

가격은 i4 eDrive40 M 스포츠 패키지가 6650만원, i4 eDrive40 M 스포츠 프로가 7310만원, i4 M50이 8490만원, i4 M50 프로가 8660만원이다.

여기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역에 따라 i4 eDrive40의 경우 최대 580만원, i4 M50의 경우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아 구매 가능하다.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가격)

한편, BMW 코리아는 오는 4월4일 오후 3시 BMW의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을 통해 인디비주얼 컬러를 적용한 i4 eDrive40 M 스포츠 퍼스트 에디션과 i4 M50 퍼스트 에디션을 판매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짜장라면의 새 기준”...오뚜기 ‘짜슐랭’ 출시

오뚜기가 물을 버리지 않고 조리하는 '복작복작' 조리법을 적용한 짜장라면 신제품 '짜슐랭'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급스런 맛과 새로운 조리방식 등 짜장라면의 격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짜슐랭을 제품명으로 정했다.

쫄깃하고 찰진 면과 풍부한 스프가 조화를 이루는 짜장라면으로, 일반 짜장라면 대비 분말스프 중량을 더 늘려 진한 짜장 맛을 느낄 수 있다.

고온 로스팅 공법으로 볶아낸 춘장을 사용하고, 파기름과 양파기름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한 스프를 별첨해 진한 풍미와 감칠맛을 더했다.

조리법도 간단하다. 냄비에 물 2컵(400ml)을 넣고 건더기 스프와 면을 5분간 끓인 뒤 분말스프와 유성스프를 넣어 비벼 먹으면 된다. 550~600ml의 물을 사용하는 기존 짜장라면 대



비 물과 가스를 절약할 수 있다. 물을 버릴 때 버려지는 건더기나 면의 손실 없이 손쉽게 조리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물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재료의 모든 맛을 그대로 농축할 수 있어 짜장의 진한 맛을 살릴 수 있다. 이 조리법은 짜슐랭을 시작으로, 오뚜기 대표 볶음면인 진짜장, 진진짜라, 크림진짜, 스파게티 등 다양한 봉지면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에어서울, 5월 광 노선 운항 재개



에어서울이 5월14일 인천-광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부로 광 노선 운항을 중단한지 약 800일 만이다. 에어서울의 인천-광 노선은 주 2회(수, 토요일) 스케줄로 운항한다. 광 노선 재운항을 기념해 탑승객 대상으로 각종 제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최이슬기자

800여일 만에 재운항

두짓타니, 두짓비치, 하얏트 리젠시 등 제휴 호텔에서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 룸업그레이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광 여행 커뮤니티 '광자길'에서는 스쿠버다이빙, 별빛투어 등 현지 액티비티 제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고다 광 숙박 7% 추가 할인, 광 한인 렌트카 할인, 와이파이도시락 할인 등 광 여행객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제휴 할인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어서울은 오는 30일부터는 사이판에 신규 취항한다. 사이판은 수, 토 주 2회 스케줄로 운항한다. 최이슬기자

사이월드, 암호화폐 ‘도토리’ 출시 선언...“돈 버는 SNS 보여주겠다”



사이월드제트는 내달 2일 사이월드 오픈과 함께 공식 암호화폐 '도토리'까지 출시하며, 웹 3.0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공식 선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사이월드의 새로운 키워드는 블록체인과 커뮤니티 그리고 메타버스

“도토리 2000년대 3200만 국민이 사용한 전자화폐”

다. 사이월드제트에 따르면 도토리는 과거 2000년대 사이월드 플랫폼 생태계를 책임졌던, 3200만 국민이 사용한 전자화폐였다.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 및 지배돼 해킹, 도난 등의 위험이 상존했던 '도토리'가 이제 탈중앙 기술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 해킹, 위변조로부터 보호돼 가장 안전한 국민 암호화폐로 새롭게 발돋움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 사이월드 메타버스는 기존 게임의 확장 형태에 머물고 있던 현재 메타버스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하기 위해 '사이월드'는 곧 일상

이다라는 슬로건에 따라 추후 확장현실(XR), 증강현실(AR) 기술 도입에 현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확장성을 보여줄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사이월드제트는 사이월드 생태계의 첫번째 패밀리 코인으로 '코년'을 선택하고, '코년'을 통해 사이월드의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화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물론이고 '코년 드라이브'를 통해 사이월드 회원들에게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이월드를 하며 돈을 번다'는 것을 도토리 코인 등으로 보여주겠다는 목표다. 이슬비기자

오비맥주, 향긋한 밀맥주 ‘카스 화이트’ 출시

코리엔더의 향긋한 아로마가 가미된 부드러운 맛

오비맥주가 밀맥주 '카스 화이트'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스 화이트는 코리엔더의 향긋한 아로마가 가미된 부드러운 맛과 카스 특유의 깔끔한 상

쾌함을 지닌 라거 스타일의 하이브리드 밀맥주다. 카스 화이트 330ml 캔 디자인은 기존 맥주 캔보다 매끈한 형태에 무광 재질로 제작됐다. 오비맥주는 카스 화이트를 앞세워 젊은 층

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카스 화이트 신규 광고는 4월 중순부터 TV와 카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카스 화이트는 알코올 도수는 4.5도다. 473ml 캔과 슬릭 형태의 330ml 캔 2종으로 출시된다. 전국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서 4월 초부터 판매한다. 스마트 오토로 3월28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서선욱기자